

# 중국 동북지방 청동기문화의 계열(상편) (中國 東北地方 青銅器文化의 系列 (上篇))

孫 守 道

(遼寧省 文物考古研究所 名譽所長)<sup>1)</sup>

譯 申 熙 權

(國立文化財研究所 遺蹟調查研究室)

## 목 차

- |                    |                 |
|--------------------|-----------------|
| I. 東北地方 青銅器文化의 淵源  | 나. 高台山 青銅器文化 系列 |
| II. 東北地方 青銅器文化의 系列 | 다. 遼東 青銅器文化 系列  |
| 가. 夏家店 下層 青銅文化 系列  | III. 小結         |

21세기가 날로 가까워지면서 중국 동북지구 및 동북아시아 청동기문화에 관한 고고학 연구 역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우리 고고학자들에게 종합 연구를 내고, 새로운 인식을 총괄하며, 연구성과를 나누고, 한층 높은 연구의 기점을 공동 탐구하도록 요구하게 된 것은 유익한 것이다.

이번 학술방문의 기회를 통해, 금세기에 발견된 일련의 중국(中國) 동북지방(東北地方) 청동기문화(青銅器文化) 유적(遺蹟)·묘장(墓葬)을 기초로 동북지구 청동기문화의 연원(淵源), 청동기문화의 계열(系列)과 청동기문화의 발전(發展) 등 세 방면의 과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년간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깨달은 바와 방법을 제출하여 삼가 널리 학계의 인정을 얻고자 한다.

## I. 동북지방(東北地方) 청동기문화(青銅器文化)의 연원(淵源)

동북지방의 청동기문화는 중국 북방 청동기문화의 한 갈래로 간주되어 동북아 청동기문화 연구에도 관계된다.

중국 청동기문화의 기원은 지금까지도 세계 고고학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여러 방면에서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중국문명 및 아시아문명의 발생과 형성, 영향과 작용에 대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반세기동안 논쟁의 초점은 줄곧 중국 은상(殷商)시대의 청동기문화가 본토에서 기원했는지, 아니면 서아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기원했는지에 맞춰져 왔다.

그러나 중국의 최근 수십년래의 고고학적 발견은 도리어 중국 야동(冶銅)의 역사가

1) 필자인 孫守道 先生은 현재 吉林大學과 遼寧大學의 兼職教授로 재직 중이며, 이 글은 필자가 1996년 3월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에서 실시중인 국제교류협력 사업으로 초청 방한하여 특별 강연한 원고를 전문 번역한 것이다. 다만 원문이 필자의 진필로 작성된데다가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원문은 게재하지 않기로 한다.

매우 이르다는 것을 다시금 표명하는데, 암소문화(仰韶文化) 만기(晩期)의 마가요문화(馬家窯文化), 용산문화(龍山文化), 제가문화(齊家文化) 등 유적의 무덤에서 이미 동제품(銅製品)이 발견되었고, 홍동기(紅銅器) 외에 역시 작으나마 청동기(靑銅器)도 출토되었다. 연대는 일반적으로 약 기원전 3천년에서 기원전 2천년 사이이다.

특히 80년대 이래 중국 동북 홍산문화(紅山文化) 우하양(牛河梁)지점에서 발견된 야동(冶銅)유적은 더욱 주목할만하다. 필자 개인으로서는 중국 청동기문화가 마땅히 독자적인 기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중국의 광활한 본토에서 다원적으로 기원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국 동북 청동기문화의 연원 문제에 기초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1983년 요서(遼西) 우하양(牛河梁) 장묘총(場廟塚) 발견 이후, 계속해서 1984년 봄 여신묘(女神廟) 서쪽 4킬로미터 떨어진 전산(轉山)의 산정부에서 홍산문화의 “금자탑(金字塔)”식(式) 거형건축물(巨型建築物)이 발견되었고, 또한 그 위에서 여러 점의 야동감과편(冶銅坩鍋片)(야동도가니편), 제련 찌꺼기 등이 채집되었다. 마침내 1986년의 시굴 및 1987년에서 1990년까지의 여러 차례의 발굴 끝에 이것이 홍산문화 거형건축물(巨型建築物) 정상부의 야동도가니터임이 밝혀졌고, 비록 후세에 교란되기는 하였으나 일부 도가니 잔해가 매장관계와 퇴적층위를 보존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 부근의 또다른 비교적 높은 산 정상에서 홍산문화 돌무덤 위에 같은 야동도가니편이 퇴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도가니 퇴적 유적내에서 크기가 각각인 추상석기(錘狀石器), 목탄 부스러기, 소토와 적석혼적어 약간 발견되었다. 도가니에는 대다수가 모래에 섞인 홍갈색태도에 바깥에는 풀과 진흙을 섞어 바르고 불에 구워 붉은색 또는 회흑색으로 만들었는데, 태도가 비교적 두껍고, 기형<sup>2)</sup>[형제(形制)]은 둥글고 편평한 아가리에 통형의 배가 깊은 모양이고, 몸체 윗부분에 보통 양쪽으로 비스듬한 구멍을 뚫었다. 그 크기는 일반적으로 구경 약 30cm, 높이 약 50cm전후이다. 도가니 내부에는 동을 제련하고 녹인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도가니편의 분포 면적과 퇴적 두께로 미루어 보건대, 최소한 원래는 천 수백개의 도가니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과기대학(科技大學) 중국고대야금연구실(中國古代冶金研究室)에서 도가니와 제련찌꺼기를 실험 분석한 결과 제련된 동(銅)이 순수 홍동(紅銅)으로 확인되었고, 그 야동방법의 연구 결과 감과내열법(坩鍋內熱法)으로 제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회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가니 몸체에 원공을 배열한 것은 관을 끼워 통풍시켜 연소를 도운 것이다. 이러한 구멍이 있는 도가니 형태[형제(形制)]와 야동 방법은 후래의 상주(商周)시대의 야련기술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교적 큰 원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초기(早期)의 특색을 갖는 것이다.

1986년 우하양(牛河梁) 제2지점 홍산문화(紅山文化) 4號총(塚) 4號묘(墓)내에서 작은 동환(銅環)1점과 검록암제 주관실(珠管飾)1점이 출토되었다. 환(環)은 화학실험을 통해 역시 홍동(紅銅)으로 밝혀졌다. 1987년 내몽고 동부 소오달맹(昭烏達盟) 오한기(敖漢旗) 왕가영자향(王家營子鄉) 서태(西台)의 한 홍산문화유적에서 가히 여러 점의 주동도범(鑄銅陶范)이 출토된 것이 증명된 예가 있어 우리의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앞서 서술한 발전과 분석에 의하면 홍산(紅山)문화는 특별히 그 만기(晩期)에 이미 동석병용시대(銅石併用時代)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하양(牛河梁) 야동 도가니터의 발견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물질문화사(社會物質文化史)상으로 보면 우하양(牛河梁) 야동도가니터는 역사

2) 원문에는 形制로 표기되어 있어 사전적 의미로는 ‘형태와 구조’라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말로 대신 할만한 적당한 용어가 없어 이하에서는 공히 ‘形制’를 기형, 형태, 형식 등의 적절한 용어로 대신하고자 한다.

단계상 신석기문화(新石器文化) 말기(末期)에서 하상(夏商)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의 사이를 잇는 것이다. 鑄

2. 역사지리(歷史地理)상으로 보면 우하양(牛河梁) 야동도가니터는 서요하(西遼河)유역, 유라시아 대륙 동단의 중국 북방지구(北方地區), 즉 옛 장성(長城)을 따라 이어지는 연산(燕山) 이북지구(北方地區)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북방 청동기문화의 연원을 연구하는데 직접적인 의의를 갖는다.
3. 야금사(冶金史)의 각도에서 보면, 우하양(牛河梁) 야동유적(冶銅遺蹟)의 발견은 한 측면에서 중국 청동기문화가 마땅히 독자적인 기원을 갖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다원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중국 북방지구에서 마땅히 자신의 발생 기제와 형성 과정 및 발전 궤적을 갖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재 그 연대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측정결과를 기다려야 그 문화의 소속이 결국 홍산문화시대에 속하는지 혹은 그 말기 또는 그 이후의 시대에 속하는지를 비로소 최종 확정할 수 있고, 진일보한 분석을 할 것이다. 현재는 다만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제출하는 것 뿐이다.

## II. 동북지방(東北地方)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의 계열(系列)

여기서 말하는 청동기문화의 계열이라는 것은 고고학상 어떤 청동기문화가 어떤 역사단계와 어떤 특정구역에서 형성되어, 상호 관련을 가지며 소멸하고 성장하는 하나의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 유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교분석을 거쳐 장차 그것은 이미 자신만의 특징을 갖춘, 또한 공통적인 하나의 큰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의 계열 속으로 귀속될 것이다.

최근 반세기 동안 동북지방에서 발견된 중요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 유적을 종합하여, 각자의 문화내용, 성질, 유형 및 시대, 지역에 의거하고 그 발전 단계와 진보의 궤적을 따라서, 우리는 기원전 20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까지에 가히 11류의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 계열(系列)을 귀납해 낼 수 있다.

1. 하가점(夏家店) 하층(下層) 청동기문화 계열
2. 고대산(高台山) 청동기문화 계열
3. 요동(遼東) 청동기문화 계열
4. 중원식(中原式) 청동기문화 계열
5. 북방식(北方式) 청동기문화 계열
6. 연북식(燕北式) 청동기문화 계열
7. 송연식(松嫩式) 청동기문화 계열
8. 하가점(夏家店) 상층(上層) 청동기문화 계열
9. 정형검(丁形劍)·다유경(多紐鏡) 청동기문화 계열
10. 촉각식(觸角式) 곡도검(曲刀劍) 청동기문화 계열
11. 평양일서차구일노하심(平洋一西岔溝一老河深) 청동기문화 계열

우선 설명컨데, 이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더욱이 종극적인 것이 아니어서, 보충, 수정, 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 분석, 연구에 편리하다.

다음으로, 각각의 청동기문화의 계열에 속한 큰 시대에 대해 말하자면, 전술한 우하양(牛河梁) 야동(冶銅) 도가니터가 일시 금석병용시대(金石併用時代)에 속하는 것을 제

의하고, 여기서 든 1, 2, 3개 계열은 조기(早期) 청동기(靑銅器)시대, 주요시대는 하상(夏商)시대 쯤에 상당하고 4, 5, 6 3개 계열은 웅당 중기(中期) 청동기(靑銅器)시대, 즉 청동기문화의 바야흐로 고전기에 속하고, 주요시대는 상주(爽周)시대 쯤에 상당하며, 7, 8, 9, 10 4개 계열은 만기(晩期) 청동기(靑銅器)시대, 서주(西周)·춘추(春秋)·전국(戰國)시기에 상당하고, 주요시대는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 하한은 극소수가 진한(秦漢)시대까지 떨어진다. 11, 즉 마지막 1개 계열은 사실상 이미 철기시대(鐵器時代)에 진입했는데, 사실 철기시대 역시 청동기문화가 존재하고 있어서, 일부 지구와 민족간에 있어서는 역시 동철병용시대(銅鐵併用時代)라고도 할 수 있다.

반드시 지적할 것은, 동북 청동기시대 3개 발전단계 사이에, 일찍이 두 차례의 큰 전환과 변화가 발생했는데, 하나는 조기(早期)에서 중기(中期)로의 전환과 변화, 또 하나는 중기(中期)에서 만기(晩期)로의 전환과 변화이다. 특별히 제기할 것은 제2차 전환, 즉 정형검(丁形劍)·다뉴경(多紐鏡)문화의 형성, 발전과 진보가 동북지방의 독특하고 독자적인 한 파를 형성하여, 일대 청동기문화 계통에 주류 작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계열의 순서에 따라 개술하겠다.

#### 가. 하가점(夏家店) 하층(下層)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 계열(系列)

하가점(夏家店) 하층문화(下層文化)는 내몽고 동부 적봉(赤峰)지구의 하가점(夏家店) 유적 하층(下層)문화의 퇴적으로 명명된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류의 문화유적은 일찍이 1920, 30년대에 잇따라 발견되었고, 1955년 객주현(喀左縣) 해도영자(海島營子) 소전산자(小轉山子)에서 이러한 종류의 전형적인 유적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서주(西周) 초기(初期) 연후우(燕侯盂) 등 청동기 저장갱이 파괴되면서 명확한 지층에 의거한 관련 유적의 하한 연대를 제공했다.

최근 연산(燕山) 남북 각지에서 이러한 류의 유적 수백 곳이 이미 발견되었고, 발굴이 이루어진 곳도 십여 곳이다. 그 분포 범위는 북(北)으로 서랍(西拉) 목륜하(木倫河)에서 남(南)으로 해하(海河), 동(東)으로 요하(遼河)에서 서(西)로 상간하(桑干河)를 이르는데, 처음에는 ‘연북(燕北)’과 ‘연남(燕南)’ 두 문화유형으로 나뉘다가 근년에는 3개 유형으로 나누자는 주장도 있다.

이 문화의 연대는 C14연대측정에 의거하면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약 3800년에서 3200년 전후로서, 아무리 빨라도 4000년을 넘지 않고, 늦어도 상대(商代)로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연대의 폭이 약 6, 7백년으로 주로 하상(夏商)시대의 한 단계이지만 그 분포 범위는 실제로 중원(中原)지구 이리두문화(二里頭文化)와 상문화(商文化)의 분포 범위보다 작지 않다.

이 문화가 반영하는 것은 주요하게는 농경경제로서, 유적의 분포가 특히 밀집된 큰 촌락지이다. 석담(石礪)(무늬가 있는 돌) 혹은 토축(土築)으로 둘러 싸인 성새 지(城塞地)로서, 대량의 삼족승문도기(三足繩文陶器)와 석제(石製) 농구(農具)가 출토되었고, 채회흑도기(彩繪黑陶器)도 있으며, 무덤에서는 돌 또는 옥으로 만든 부월(斧鉞)이 출토되었고, 일부 유적 또는 무덤에서는 청동제품이 발견되었는데 소수는 (하북(夏北) 대성산(大城山)출토 동패형편(銅牌形片)이 감정 결과 홍동(紅銅)으로 밝혀진 것과 같이) 홍동(紅銅)제품이었다.

현재까지 동제품(銅製品)이 출토된 무덤 유적은 십여 곳에 이르고, 출토 유물은 보통 소형 공구(工具), 장식품과 부속품이었다. 비교적 늦는 흥성(興城) 선령사(仙靈寺), 계현(薊縣) 장가원(張家園), 대창(大廠) 대이두(大坨頭)유적에서는 동화살촉이 출토되었다. 더욱이 금현(錦縣) 수수영자(水手營子)의 한 무덤에서 출토된 연병동과(連柄銅戈)는 극히 드물게 발견된 것이다.

주동(鑄銅)유물로는 가까스로 적봉현(赤峰縣) 사분지(四分地)유적에서 출토된 작은 도범(陶范)하나가 있는데, 채회도기(彩繪陶器)와 함께 출토되었고, 쌍합범(雙合范)의 일면으로, 윗부분에는 동(銅)을 붓는 주둥이와 다른 한쪽과 꼭맞아 떨어지는 연결 표시가 있으며, 당연히 장식품류를 주물했던 것이다. 용범이 비록 작기는 하지만 도리어 매우 정연하다(圖 1). 1982년 우리가 객좌(喀左) 적달수(滴達水) 동광산(銅礦山) 조사에서 이 시기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광갱(礦坑) 유적을 발견하였는데, 승문회토기편(繩文灰陶器片)과 석기(石器)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동기를 종합해 보면, 장식품(裝飾品), 공구(工具), 무기(武器)의 3종류가 있다.

장식품은 주로 3종류가 있는데, 부간문화(富干文化)의 특징이다. 한 종류는 만구상(灣鉤狀) 나팔형(喇叭形) 이식(耳飾)으로 경진(京津)지구의 위방(圍坊), 장가원(張家園)과 유리하(琉璃河)에서 출토되었고, 근년에는 요서(遼西) 부신현(阜神縣) 평정산(平頂山) 유적에서 역시 1점을 발굴해냈다. 다른 한 종류는 나선형(螺旋形) 또는 탄황형(彈簧形) 용수철형이라고도 하는 환장식(環狀飾)이고, 또 한 종류는 양 끝이 선면형(扇面形)인 환장식(環狀飾)이다. 이 두 종류는 유리하(琉璃河) 무덤에서 출토된 것과 같이 큰 것은 축(鑷) 혹은 천(鉤)이라 부르고, 작은 것은 당연히 지환(指環) 또는 이환(耳環)이다.

이 3종류의 장식품은 어떤 것은 내몽고 소오달맹(昭烏達盟)과 북경 유리하(琉璃河)에서 출토된 것과 같이 금(金)으로 만들었다.

공구는 주로 작은 칼(도(刀))과 송곳(추(錐))이다. 칼은 양식(兩式)으로 나뉘는데, 1식은 위방(圍坊) 출토품과 같이 칼 끝이 위로 들리고 칼 몸이 약간 구부러진 것이고, 다른 1식은 장가원(張家園)출토품과 같이 칼 몸이 위가 굽고 칼 손잡이가 불룩하지만, 칼 몸과 자루가 명확한 경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무기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주로 동축으로 전부 쌍익식(雙翼式)이고, 대(帶)와 정(錠)이 무관한 것이 특징이다. 흥성(興城) 선령사(仙靈寺), 계현(薊縣) 장가원(張家園) 출토 화살촉의 정(錠)은 모두 심이 차 있고, 송곳모양이며, 대창(大廠) 대타두(大陀頭) 출토 화살촉의 정(錠)은 관처럼 심이 비어 있다. 그러나 가장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금현(金縣) 수수영자(水手營子)의 묘(墓)에서 승문격(繩文鬲), 절복분(折腹盆), 유공석부(有孔石斧)와 반출된 연병동과(連柄銅戈) 1점으로서, 높이 80.2cm이고, 창 몸과 자루를 붙여서 구조했다. 자루에는 능격권점문(菱格圈點紋)이 가득하고, 자루 끝부분에는 편구형(扁球形)의 머리를 구조해 붙였는데, 창고달(준(鑄))처럼 병수(柄首) 꼭대기가 밖으로 구부러져 있고, 비모(秘冒)처럼 창과 몸이 연결돼 있다. 창 머리는 직내식(直內式)이고, 원(援)부분은 가늘고 길며, 용마루가 있고, 얇은 날은 예리하며, 길이 20cm, 폭 4cm, 두께 0.6cm이다. 내(內)는 장방형이고, 주변에 테를 들렀는데 길이 3.8cm이다. 자세히 보면 이 연병과(連柄戈)는 완전무결하고 독특한 이채로움을 띠고 있는 진귀한 것이다. 1994년 우리는 일본 경도(京都)의 인관(隣館)에서 역시 이 형식[형제(形制)]과 유사한 연병동과(連柄銅戈) 1점을 보았는데, 오로지 창 끝만 남아있고, 위에는 전국명(戰國銘)이 위조로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하가점(夏家店) 하층문화(下層文化)의 무덤에서 출토되었고, 뿐만 아니라 창(戈)의 형식[형제(形制)]도 이리두문화(二里頭文化)의 창과 매우 가까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밖에 소맹(昭盟) 오한기(敖漢旗) 대전자(大甸子) 묘군(墓群)에서 석제 무기에 부착된 동(銅)제품이 출토되었는데 자루에 썩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몸체를 구부러서 삼각형으로 만들었는데, 길이 약 5cm이고, 쌍합범(雙合范)으로 구조했으며, 내부는 심이 비어 있고, 단면 편원체이며, 자루구멍 안에는 아직도 목질흔이 남아 있다. 구연 가까운 곳 양면에 문양 장식이 구조되어 있는데, 한줄은 3개의 유점문(乳點紋)이고, 그 위에 다시 3개의 사조문(斜條紋)이 있다. 분명히 그 구조 공예가 이미 상당히 높은 일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과 연병동과(連柄銅戈)의 출현은 그 야금기술의 기초가 이미 존립돼 있고, 동북 청동기문화의 발전에 매우 큰 추동작용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진보를 이룬 것이다(상술한 동기(銅器)는 圖 2 참조).

#### 나. 고태산(高台山)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 계열(系列)

고태산문화(高台山文化)는 70년대 심양(沈陽) 서쪽 신민(新民) 고태자향(高台子鄉)유적에서 처음 발견되어 명명된 것이다. 발굴된 주거지와 무덤에서 일군의 특징적이고 상당히 전형적인 모래가 섞인 홍갈도기군(紅褐陶器群)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이 붉은 칠한 간 홍도기(紅陶器)이고, 항아리(호(壺)), 단지(관(罐)), 사발(완(碗)), 바리(발(鉢)), 등이 많으며, 그리고 유적에서 세 발 달린 솔(격(鬲)), 시루(甗), 등 세 발 달린 취사용기도 출토되었다. 그릇 몸체 또는 목부분에는 보통 손잡이 귀(□이(□耳)), 다리 모양 귀(교상이(橋狀耳)), 또는 꼭지 귀(□이(□耳)),가 달려 있고, 목어깨에 또한 용기문(부가퇴문(附加堆紋)) 장식이 있는 특이한 성격을 띠고 있다. 석기(石器), 골기(骨器)는 매우 발달했는데, 호미(서(鋤)), 삽(산(鏟)), 칼(도(刀)), 송곳(추(錐))이 많고, 경제는 농경(農耕)을 위주로 하고 목축(牧畜)을 겸하였다. 현재 이미 알려진 고태산문화(高台山文化)의 분포 범위는 하가점(夏家店) 하층문화(下層文化)의 동쪽 요하평원(遼下平原)이 그 중심구역으로 신민(新民), 장무(彰武), 부신(阜新)에 분포가 비교적 밀집돼 있고 서북방의 고륜(庫倫), 내만(奈曼), 오한삼기(敖漢三旗) 경제지역에 달하는 등 요북(遼北)까지 확산되었으며, 하가점(夏家店) 하층문화(下層文化)와 접촉·교류하며, 상당 시간 평행·교착의 발전관계를 유지하였다. 연대의 폭으로 보면, 고태산문화(高台山文化)는 하가점(夏家店) 하층문화(下層文化)보다 빠를 수 없고, 보통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후인데, 다만 그 연속시간이 비교적 길어서 하한은 상(商) 만기(晩期)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이 문화와 관련된 유형의 변화와 발전, 교체는 설명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다. 오로지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의 각도에서 본다면 흥미롭게도 이 문화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종류와 수량이 비록 적다고는 하지만 하가점(夏家店) 하층문화(下層文化)의 청동기와 매우 큰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장무(獐霧) 평안보(平安堡) 고태산문화(高台山文化) 유적층에서 출토된 작은 동칼(동도(銅刀))과 나팔형(喇叭形) 동이식(銅耳飾)은 서로를 비교해 볼 때, 동칼의 시수(翅首), 이식의 나팔형과 같은 큰 공통성을 보이지만, 칼 손잡이에 쌍치(雙齒)가 있는점, 이식의 나팔구가 장릉형(長菱形)인 점과 같은 세부 차이가 있어 역시 자신만의 특징을 갖기도 한다.

중시할 것으로 평안보(平安堡)유적 제5층에서 출토된 작은 석범(石範) 1점이 있는데, 원판 모양으로 직경 5.2cm이며, 용범 중심에 움푹한 구멍이 있는 당연한 합범용(合範用)의 자모와(子母窩)로서, 외면에 환형(環形)의 요(凹)자 홈이 있어서, 마땅히 동환(銅環)을 주조했던 용범이다. 부신현(阜新縣)무환지(務歡池)의 한 고태산문화(高台山文化) 무덤에서도 동환(銅環)장식품이 나와서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 밖에, 신민(新民) 고태산(高台山)유적 1호 구덩이(T1H3)에서 일찍이 비너형 동제품이 출토되었는데, 길이가 약10cm정도이다. 편평하고 긴 못(정(釘))과 비슷하고, 상부에 3개의 작은 구멍이 있으며, 꼭대기가 삿갓모양으로, 후세의 물건일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평안보(平安堡)유적 출토 A형 뼈비너(골계(骨筭))와 형태가 비슷해 가히 비교 검증할 만하다(圖) 3 참조).

현재까지 알려진 고태산문화(高台山文化)에 속하는 청동기문화유물은 대체로 위와 같고 두가지 점이 인정된다.

첫째, 유적에서 주범(鑄范)이 출토됨으로 해서 해당 문화의 주민이 이미 능히 작은 동기(銅器)를 주조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출토된 동칼과 동이식, 더욱이 나팔형 이식은 명백히 하가점(夏家店) 하층문화(下層文化)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할 것은 고태산(高台山)문화의 주민이 농업을 위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고고학 흔적으로 보건대 당시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도작(稻作)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다. 부신현(阜新縣) 무환지(務歡池) 고태산(高台山) 묘지(墓地) 유적의 사방에서 범위가 상당히 큰 관개수로 유구가 발견되었다. 최초 발굴한 2300평방미터에서는 가로 세로가 교차하는 크고 작은 수로 10여조와 무덤 37기를 확인하였는데 일부 수로가 무덤에 의해 파괴되었고, 전부 3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관개수로는 주로 간거(干渠), 지거(支渠), 모거(毛渠)로 나누는데, 전부 인공으로 파서 만든 것으로,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역사다리꼴이고, 3종의 수로는 크기, 깊이, 폭 등이 각기 차이가 있으며, 총길이가 약 245m이다. 간거(干渠)와 지거(支渠)가 만나는 곳에서 물을 막는 수문(水門)의 기둥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당시의 축수(蓄水), 방수(放水), 배수(排水)와 관련된 시설이다. 수로의 동북모퉁이에는 삼각구역이 있는데, 간거(干渠)와 지거(支渠)의 물이 모여 이 곳을 통과하면서 분류(分流)하여 형성되었다.

수로가 가로세로로 관통함으로써 전지(田址)를 분할하여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 장방형의 덩어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수로와 수로, 땅과 땅 사이에 분명한 물의 낙차가 있다. 수로의 내부에서 모래가 섞인 홍도기편(紅陶器片) 등을 정리해 냈고, 사발, 바리, 항아리, 단지 및 시루, 세발 달린 솔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고태산문화(高台山文化) 유형(類型)에 속하는 기물(器物)로서, 유형 대비 연구 결과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후로 생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장 고찰 후 이것이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비교적 이르고, 비교적 완전한 고대(古代) 농전(農田) 관개(灌溉) 계통의 하나로서, 명백히 도작(稻作)과 관계가 있으며, 진일보한 다방면의 연구가 요구된다고 여기고 있다. 동환(銅環)장식품이 출토된 무덤은 바로 이 무덤군 중의 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고태산(高台山)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 연구의 한 방면이 도작문화(稻作文化)의 동전(東傳) 연구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다. 요동(遼東)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 계열(系列)

이제까지 요동지구에서 비교적 이른 청동기 고고자료의 발견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요동 청동기문화의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근년에 대련(大連), 요양(遼陽)과 본계(本溪) 세 지역에서 몇점의 동기(銅器)가 새로 발굴 출토된 문화유적이 이 문제의 분석에 약간의 도움을 주었고, 이제 요동반도(遼東半島), 요하평원(遼河平原)과 요동산지(遼東山地)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 1) 요동반도(遼東半島) 쌍타자(雙陀子)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 유형(類型)

요동반도 남단의 대련만진(大連灣鎮)에 위치한 대취자(大嘴子) 임해대지(臨海台址) 유적은 쌍타자(雙陀子) 조(早)·중(中)·만(晩) 3기(期)의 유물퇴적층을 포함하고 있다. 제일 아래층인 제4, 5층은 초기(早期)로서 하가점(夏家店) 하층(下層)유형에 가깝고, 제3층은 중기(中期)로서 약석문화(岳石文化)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제2층은 만기(晩期)이다. 연구할 만한 것으로 그 초기층(早期層)과 만기층(晩期層)에서 각각 1점의 동기(銅器)가 출토되었는데, 무기류로서 매우 진귀한 것이다.

조기층(早期層)인 제4층에서 출토된 1점은 동과형기(銅戈形器)로서, 단지 창몸 “원(援)”부분의 반 정도가 남아 있고, 중앙에 등대가 솟아 있으며, 그 앞의 뾰족한 부분과 끝단의 “내(內)”부분이 결실돼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길이는 8.4cm, 폭3.4cm이고, 전체 길이는 약 15cm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창이었다고 인정하며 4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창몸 양측이 비대칭이다. 둘째, 창몸의 등대가 정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셋째, 양측 날부분의 각도가 다르다. 넷째, 끝단부분에 목병(木柄)(비(秘))의 흔적이 남아 있다. 또한 이것이 중원지구로부터의 산물이 아니라, 마땅히 현지에서 구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필자가 이 실물을 보고 나서도 역시 같은 느낌이었는데, 논지에 일리가 있고, 같은 층에서 출토된 석과(石戈) 역시 상당히 유사하다. 더욱이 석과(石戈)는 그 자루를 끼우는 부분의 “내(內)”단에 요(凹)자의 홈이 있고, 과(戈)류의 용도로 만들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즉, 그것과 금현(鎡縣) 수수영자(水手營子)의 연병동과(連柄銅戈)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생각할만한 가치가 매우 높는데, 그 시대 역시 하상(夏商)시대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만기층(晚期層)인 제2층에서 동촉 1점이 출토되었는데 형태가 모(矛)와 유사하고, 중앙에 등대가 솟아 있으며, 양날개에는 미늘이 없이 날개의 양 끝단부분에 각기 1개씩의 구멍이 있는 것이 좀 특이하다. 그 정(鏃)부분은 송곳같이 길고, 전체길이가 8.2cm에 달하는 분명히 특수 제작한 대형촉으로, 산둥(山東) 사수(泗水) 윤가성(尹家城)에서 출토된 거석문화(巨石文化)의 동촉과 외형상 유사한 점이 있다(圖 4, 5 참조).

과족부월(戈鏃斧鉞)은 요서(遼西)와 요동(遼東)의 사이 발해만(渤海灣)에 연해서 유행했는데, 이것은 동북(東北) 남부(南部)의 조기(早期)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와 이리두문화(二里頭文化) 및 거석문화(巨石文化)간의 모종의 동질성에 다소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 내재한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적할 것은 이 유적 상층의 한 주거지에서 탄화된 곡립이 담긴 3개의 단지와 탄화된 고량 입자가 담긴 3개의 단지가 출토된 것이다. 전자는 과학적 검증 결과 갱도(稷稻)임이 밝혀졌다. 다시 앞서 상술한 무환지(務歡池) 고대산문화(高台山文化) 관개(灌溉)유구의 발견과 연계지어 보면, 확실히 도작(稻作)이 요서(遼西)에서 요하(遼河)를 거쳐 요동(遼東) 연해(沿海)로의 확산 방향과 전과 경로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 2)요동(遼東)산지(山地) 묘후산(廟后山)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 유형(類型)

근 수십년래 태자하(太子河) 상류 산지(山地)의 용암지대에서 그곳 원시주민의 생활장소와 매장지가 된 “혈거(穴居)”와 “혈장(穴葬)”으로 불리는 많은 절벽동굴이 발견되어 그 문화의 독특한 특색을 구성하였다.

60년대 초, 우리는 본계(本溪) 소시(小市) 사가위자(謝家葭子) 동굴 안팎에서 원시문화유적을 발견하였고, 이어서 산성자(山城子) 묘후산(廟后山)에서 구석기시대 동굴유적을 발견하였다. 또 동굴의 상층(上層)에서 “묘후산(廟后山) 상층문화(上層文化)”로 불리는 만기문화(晚期文化) 퇴적과 화장묘지(火葬墓地)를 발견하였고, 계속해서 태자하(太子河)연안을 따라 북전자(北甸子), 장가보(張家堡), 마성자(馬城子) 동굴 등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의 혈거, 혈장유적을 발견 발굴하였다. 이곳 혈장의 가장 큰 특징은 장식(葬式)과 장법(葬法)이 다양한 화장(火葬)을 보편적으로 실행했다는 것이다.

청동기문화의 각도에서 보면, 그중 1986년 장가보(張家堡) 동굴무덤의 발견이 전형이 된다. 동굴퇴적 제2층 M26, 제3층 M11, M24와 제4층 M50, 이 4기의 무덤에서 동(銅)장식품 6점이 출토되었다. 중국(中國) 과학원(科學院) 금속연구(金屬研究)의 과학적 검



중을 거쳐 동과 주석이 고르게 합금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청동임이 밝혀졌다.

M50에서 출토된 만구상(彎鉤狀) 동(銅) 장식품을, 발걸자는 이식(耳飾)으로 여겼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높이가 3.8cm이고, 한 끝이 편평하고 넓으며, 다른 한 끝은 비교적 좁고 뾰족하다.

M11에서 출토된 환형(環形) 동(銅) 장식품은 한 쌍으로, 인체의 좌측에 놓여 있고, 역시 이식(耳飾)이며, 비교적 대형으로, 외경 5.6~5.8cm이고, 환(環)의 양끝은 역시 한쪽이 넓고 한 쪽이 좁다.

M24, M26에서 각각 출토된 구멍 있는 동편(銅片) 장식은 매우 얇아서 겨우 0.1cm이고, 외경이 2.4~2.6cm이며, 그 구멍이 위쪽에 치우쳐 있는데, 직경이 약 0.5cm정도이다. 두 점의 형태가 같아서 정식을 이루는 것을 보여준 것이 주목할만 하다.

그 밖에 M24에서 두 조각이 접해 있는 원각장방형 동(銅) 장식품편이 한 점 출토되었는데, 길이 3.6이고, 용도는 불명이다. (圖 6 참조)

그 중 M11연대는 C14연대측정 결과 지금으로부터 3090±55년, 수륜보정연대는 3270±135년이 나왔고, 동(銅) 장식품이 출토된 M50과 같은 층위인 제4층의 M52의 연대는 연대측정결과 3585±65년, 수륜보정연대 3895±99년이 나왔다. 종합해 볼 때, 이 6점의 동(銅) 장식품의 연대가 지금으로부터 3800~3200년으로 나와, 하가점(夏家店) 하층문화(下層文化)와 고대산문화(高台山文化)의 연대 상하한과 매우 가까워서, 그 주된 시대는 역시 하상(夏商)시대에 상당한다.

이러한 류의 청동 장식품이 소속된 문화유형으로 말하자면, 모래가 섞인 회갈소면도(灰褐素面陶)가 추가되고, 문양 장식은 극히 적은데, 소수나마 용기문(부가퇴문(附加堆紋))이 있고, 향아리·단지·바리는 세로 귀가 많지만, 가로 귀도 있으며, 더욱이 꼭지귀, 손잡이 귀가 흔히 보인다. 삼족기(三足器)와 두형기(豆形器)는 보이지 않는다. 석기는 도끼, 칼 외에 석봉두(石棒頭), 윤상기(輪狀器) 등이 있다. 이들은 확실히 그들 스스로의 문화내용과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감정 결과 모든 동굴문화유형은 일치하지 않고 큰 차이가 있다. 동기(銅器)가 출토된 장가보(張家堡)동굴문화의 내용으로 논하자면, 현재 묘후산(廟后山) 상층문화(上層文化) 유형에 속하는 것이 당연하다.

### 3) 요하평원(遼河平原) 접관청(接官廳)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 유형(類型)

1965년 요양(遼陽) 장태자향(張台子鄉) 접관청(接官廳)에서 한 무더기의 석관묘와 주거유적을 발굴하였다. 해당 지역은 요양시(遼陽市) 북쪽 10km 태자하(太子河) 좌안(左岸) 평탄대지에 위치해 있다. 유적이 노출된 문화 퇴적층은 두께 약 1~1.5m정도인데, 석체묘(石砌墓), 구덩이 등이 있고, 유물로는 모래가 섞인 조잡한 가로 귀 단지, 다리 모양의 세로 귀 단지, 긴 다리 접시(고좌두(高座豆)) 원추모양의 다리 달린 솔 및 유견석부(有肩石斧), 쌍공석도(雙孔石刀) 등이 있다. 무덤군은 유적의 북단에 있고, 소규모의 범위내에서 26기를 노출시켜 14기를 정리했는데, 석피 혹은 석판을 쌓아올려 관을 만들고, 아래를 깔고 위를 덮었으며, 일부는 돌을 깔지 않거나 혹은 토광위를 석판으로 덮었다. 대다수가 단인장(單人葬)으로서, 돼지의 두개골을 순장하였고, 관 꼬리에는 긴 목 향아리, 꼭지귀 하나 달린 바리 또는 가로 귀 향아리·단지를 놓았다. 묘후산(廟后山) 상층문화(上層文化) 유형(類型)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중 M7의 관(棺) 내부 인골의 머리 우측에서 동(銅) 장식품이 모두 10점 출토되었는데, 한데 쌓아 두었다. 하나 살펴 보면 :

나선형(螺旋形) 동식(銅飾) 1점, 긴 판을 말아서 나선형으로 만든 것으로, 천(釧)과 유사한데, 외경은 7.5cm이고, 안팎 양 끝이 편평하고 넓은 것이 특징이다.

환형(環形) 동식(銅飾) 2점이 1쌍으로 환체(環體)가 원반형이고, 한 끝이 편평하고

넓으며, 다른 한 끝은 좁고 가늘다. 환(環) 직경은 4cm로 가히 이식(耳飾)일 가능성이 있다.

소이환(小耳環), 모두 6점으로 3쌍이다. 전부 짧은 판을 말아서 소환(小環)을 만들었다. 대개 부정원이고, 비교적 큰 것이 직경 1.2cm, 작은 것이 0.8cm이며, 환(環)의 양 끝은 대개 한쪽이 굵고 다른 한쪽이 가늘다.

정침형(丁針形) 동식(銅飾) 1점, 넓은 동편을 말아서 만든 통형(筒形) 환(環)으로 직경 1.3cm이다.(圖 7 참조)

이러한 류의 동식(銅飾)의 형식[형제(形制)]을 종합해 보면, 전술한 장가보(張家堡) 동굴무덤에서 출토된 동(銅) 장식품에 비교적 가깝고, 특별히 한 쌍의 환형(環形) 동식(銅飾)이 매우 유사한데, 그 양끝이 전부 한 쪽이 넓고 다른 한 쪽이 가늘며, 넓은 끝은 선면형(扇面形)을 띄고 있어, 하가점(夏家店) 하층문화(下層文化) 동환(銅環)의 양끝이 전부 선면형(扇面形)인 것과 구별되는 것이다.

접관청(接官廳) 석관묘군(石棺墓群)의 연대는 C14연대 측정을 하지 않았으나, 다만 그 유물군 형식[형제(形制)], 조합과 모든 문화 내용으로 볼 때, 묘후산(廟后山) 상층문화(上層文化) 유형(類型)과 비교하여 연대가 거의 비슷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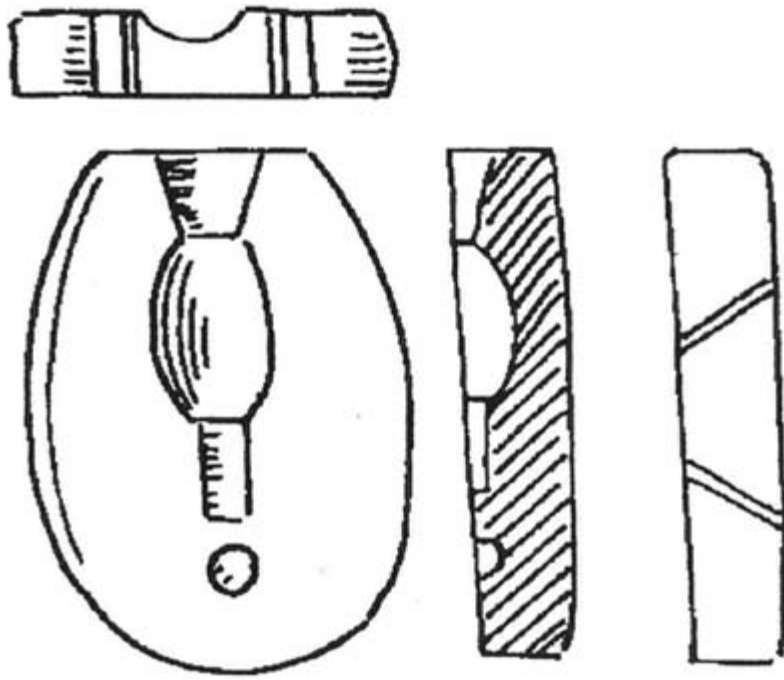
### III. 소결(疏決)

전체 동북지구(東北地區)를 볼 때, 현재 발견된 조기(早期) 청동기문화(青銅器文化) 계열(系列)은 대체로 이러하다. 비교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간단히 말하면 6가지이다.

1. 동북(東北) 조기(早期) 청동기문화(青銅器文化)는 요서(遼西)지구에서 발달하여, 장족의 발전을 거쳤다. 요동(遼東)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요서(遼西)의 발달만큼은 못하나 동시성(同時性)을 가지고 있다.
2. 하가점(夏家店) 하층(下層) 청동기문화(青銅器文化)는 주로 이리두문화(二里頭文化)에 대비되는데, 이미 장식품, 공구, 무기류가 있다. 사회와 문화 발전 수준은 상당히 접근된 것이다.
3. 고대산문화(高台山文化)는 하가점(夏家店) 하층문화(下層文化)와 밀접한 왕래관계가 있었고, 청동기문화는 일정한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발전은 평행하지 않고, 수준도 차이가 있다.
4. 요동반도(遼東半島)의 청동기문화(青銅器文化)는 보아하니 한가지 원류가 아니다. 환발해구역(環渤海區域)에서 이미 요서(遼西) 청동기문화와 관계가 있었고, 또한 산둥(山東) 청동기문화와도 관계가 있었으며, 동(銅) 장식품뿐만 아니라 동(銅) 병기(兵器)도 있다. 그러나 확실치 않으므로 연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5. 묘후산(廟后山)과 접관청(接官廳) 문화 유적 출토 소형 동기(銅器)는 당연히 인근 청동기문화의 접촉으로 출현한 것이라는 것과 더욱이 장식품이 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차 더 명확하고 더 전형적인 발견이 있다면 마땅히 전문적인 청동기문화 계열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6. 길림(吉林)지구(地區)에 분포하는 서단산문화(西團山文化)와 송늪평원(松嫩平原)의 백금보문화(白金寶文化)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연대가 비교적 늦어서 오히려 조기(早期) 청동기문화(青銅器文化)에 편입시키기는 어렵다. 이 역시 동북지방 청동기문화가 먼저 남부에서 발전하여 나중에 북으로 확산 발전되는 자연스러운 일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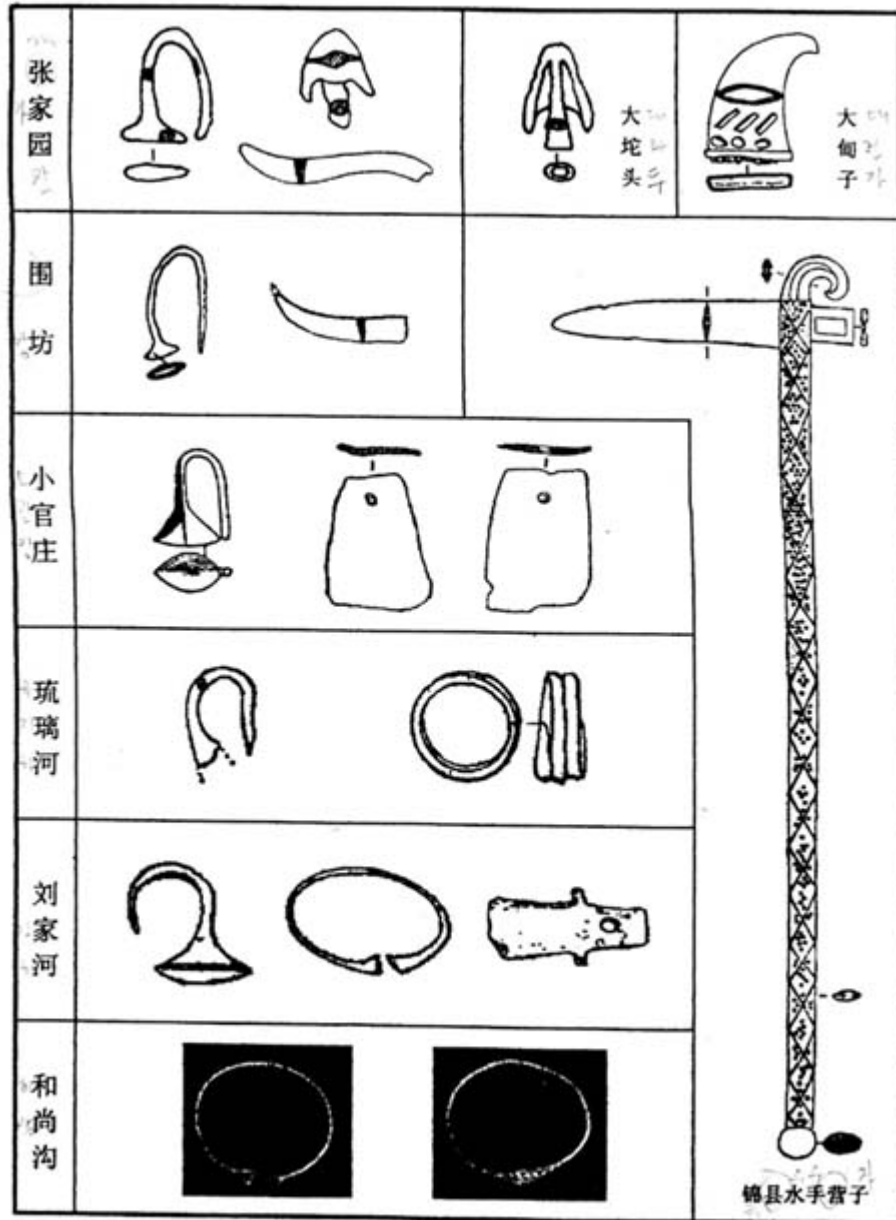
의 역사 추세를 이루었다.

이러한 바, 상주(商周)시대, 즉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동북(東北)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에 큰 변화가 생겼고, 하나의 새로운 찬란하고 복잡다변한 발전 단계가 출현하였다. (상편 끝).



북표풍하 출토 도범  
圖 1. 北票豐下 出土 陶范

圖 1. 북표풍하(北票豐下) 출토(出土) 도범(陶范)



※ 도면 맨 아래和尚溝 유물은 비교자료로 제공한 것이니 참고 바람.

圖 2. 夏家店 下層文化 青銅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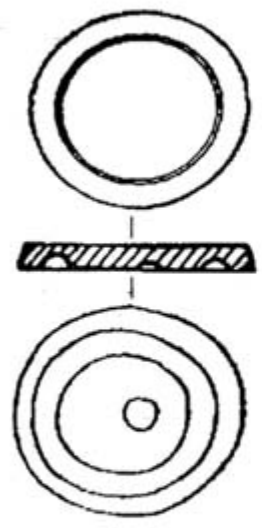
※ 도면 맨 아래 화상구(和尚溝) 유물은 비교자료로 제공한 것이니 참고 바람.

圖 2. 하가점(夏家店) 하층문화(下層文化) 청동기(青銅器)

1. 무환지출토(務歡池出土)
2. 평안보출토(平安堡出土)
3. 고태산출토(高台山出土)
4. 평안보출토(平安堡出土)

평안보출토석범(平安堡出土石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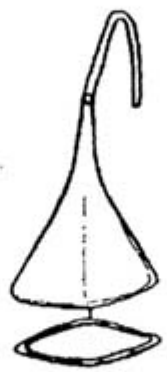
- 무화기출토  
 1. 務歎池出土  
 2. 平安堡出土 → 평안보출토  
 3. 高台山出土 → 고대산출토  
 4. 平安堡出土 → 평안보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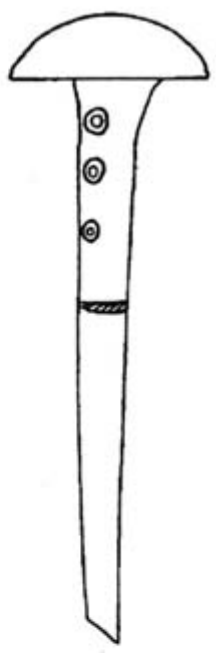
平安堡出土石范  
 평안보출토석범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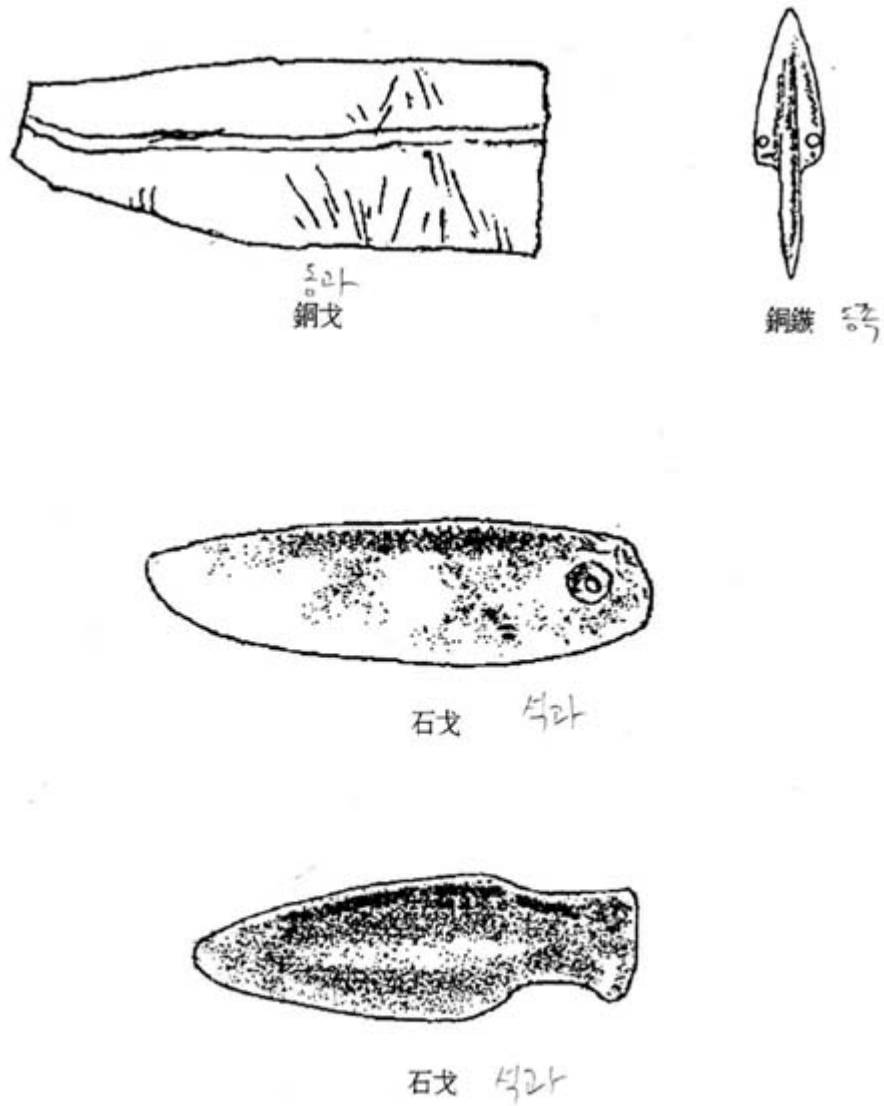


(4)

고대산문화 청동기  
 圖 3. 高台山文化 青銅器

圖 3. 고대산문화(高台山文化) 청동기(青銅器)

- 동과(銅戈)
- 동족(銅鍬)
- 석과(石戈)
- 석과(石戈)



대련 대취자 유적 출토 유물  
圖 4. 大連 大嘴子遺蹟 出土 遺物

圖 4. 대련(大連) 대취자(大嘴子) 유적(遺蹟) 출토(出土) 유물(遺物)

1. 동과(銅戈)
2. 동족(銅鏃)
1. 석과(石戈)
2. 석과(石戈)
3. 도호(陶壺)
4. 도궤(陶甗)



1. 石戈



2. 石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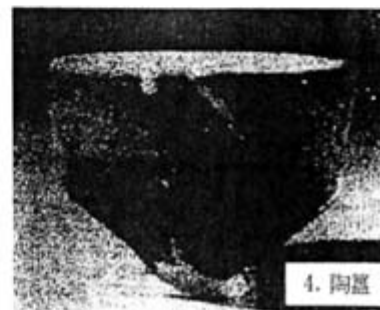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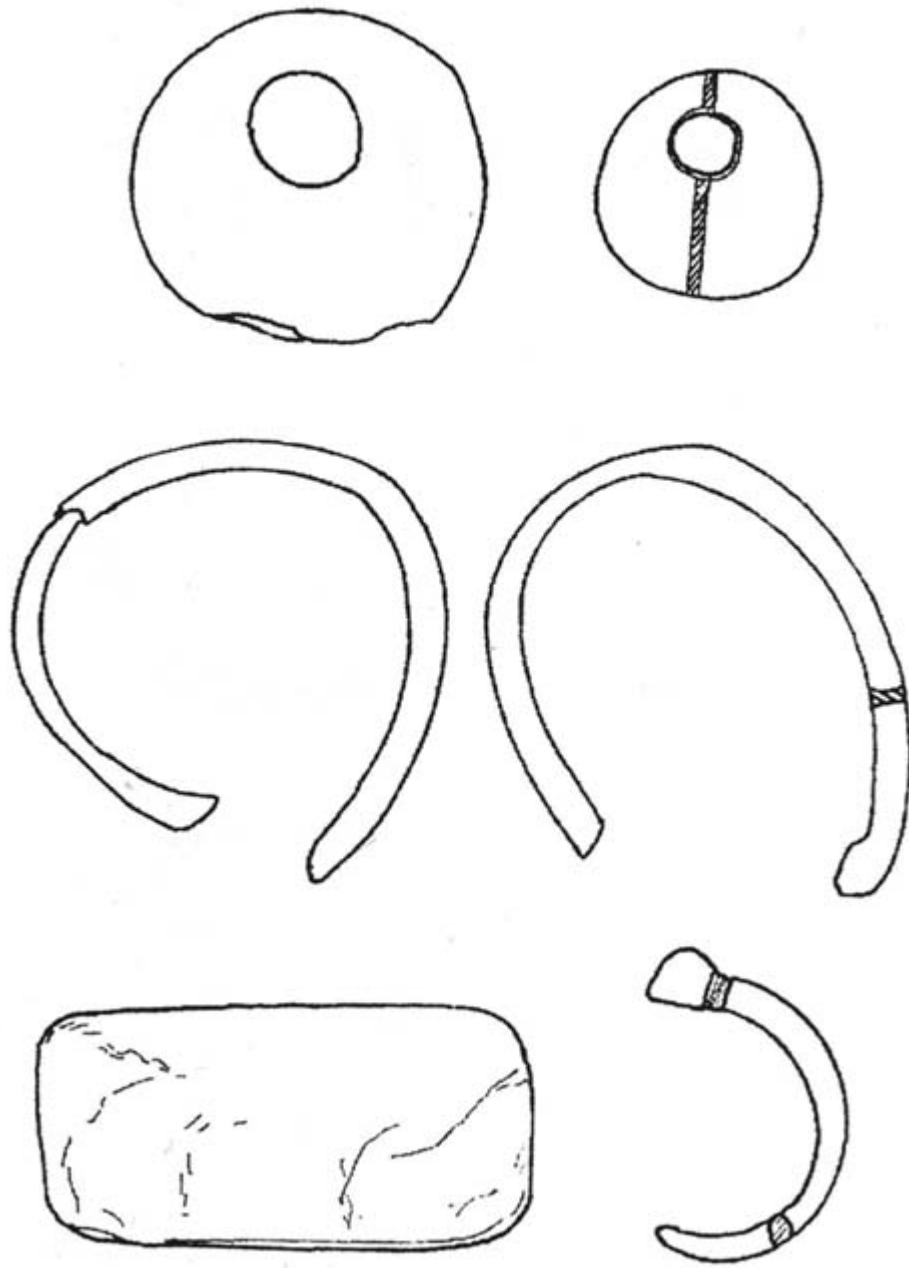


圖 5. 大連 大嘴子遺蹟 出土 遺物 寫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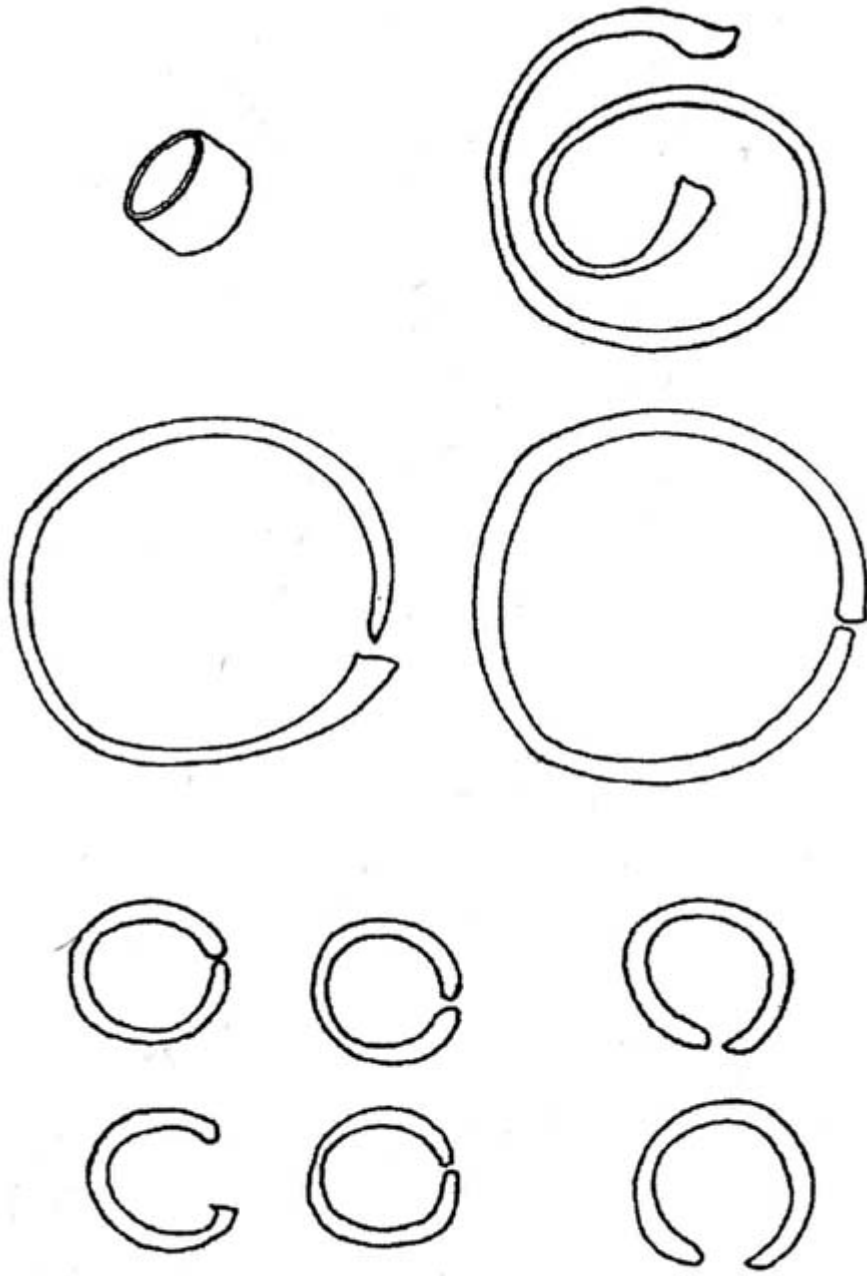
圖 5. 大連(大連) 대취자(大嘴子) 유적(遺蹟) 출토(出土) 유물(遺物) 사진(寫眞)





장가보  
 圖 6. 張家堡 A 동굴무덤 出土 銅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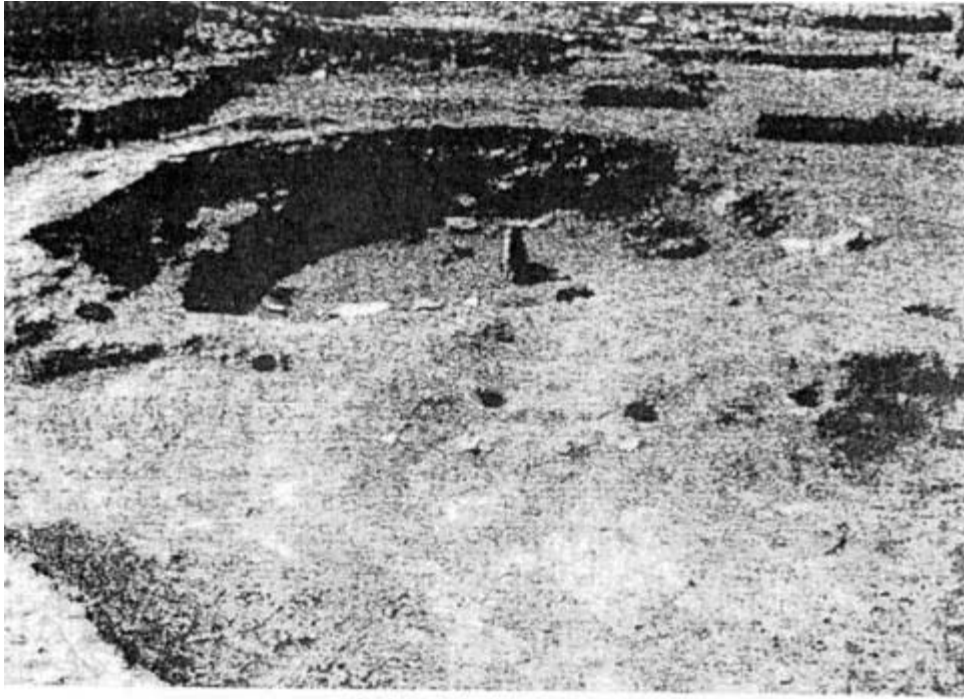
圖 6. 장가보(張家堡) A 동굴무덤 출토(出土) 동식(銅飾)



요양시 접관청 석관묘 동식품  
圖 7. 遼陽市 接官廳 石棺墓 銅飾品

圖 7. 요양시(遼陽市) 접관청(接官廳) 석관묘(石棺墓) 동식품(銅飾品)

촌락유적내 반수혈주거지  
유적내 출토 각종 토기(土器)



촌락유적내 반수혈주거지

圖 8. 대련(大連) 대취자(大嘴子) 청동기시대 촌락유적 및 출토 토기(土器)